

主題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손연기

차 례

- I. 서론
- II.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성과
- III.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과 전망
- IV. 정보기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I. 서 론

정보화 사회는 디지털이 부(富)의 원천이 되며, 컴퓨터와 통신이 모든 사회활동의 핵심수단인 사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자”라는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를 통해 조기에 정보화 사회로 편입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가 정보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04년 6월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1,162만 명, 국민 인터넷 이용률 68.2%에 달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이러한 IT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서비스, 기업운영, 국민생활 등의 모든 분야

에 정보화가 깊숙이 퍼져있으며, 정보기술이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강국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의 절적 성과 부족, 정보활용의 생산성 제고 미흡, 기업 정보화 확산 저조, 정보격차의 심화, 정보화역기능의 확대 등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의 투자효과와 생산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격차 해소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001년 「정보격

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2001~2005)」 추진결과, 농어촌 지역에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졌고, 취약계층의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도 상당수 증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국민의 31.8%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장애인, 노인, 농어민,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보접근 격차는 지속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68.2%의 국민들조차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소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활용에서의 격차 또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격차에 대한 접근방식이 더 이상 정보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보이용자와 비용자의 문제라는 접근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질적 차이와 정보화의 성과를 고려하는 정보활용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격차 해소전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보기회 실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전략과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성과

1.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1) 정치적 불평등 구조와 사회통합의 저해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의 보유에 따른 물리적 장벽 이외에 정치적·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배제를 가져온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사이버 시위 등 인터넷이 정치활동의 중심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이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20~30대, 사무직, 도시중산층 등에 의해 여론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능력이 부족한 장·노년층, 생산직, 농어민, 장애인 등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정치적 소외감과 반발심은 계층 간 갈등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해소 없이는 진정한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사회통합은 어렵다고 하겠다.

2)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

정보격차는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되어 전개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부의 격차는 지식과 기술습득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지식과 정보로의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며,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 부를 획득할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실제로 정보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고학력자의 소득은 상승하는데 반해, 단순노동직에 근무하는 저학력 주민들의 소득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Castells, 1999), IT기술의 사용 여부에 따라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순희 외, 2001).

3) 사회문화적 정보격차와 세대 간 갈등

정보통신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사이버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알며,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인터넷게임이나 채팅이 일상화된 젊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부모세대는 분명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다양한 생활양식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세대 간 격차는 문화적 단절과 이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중장년 층 세대가 느끼는 괴리감은 기존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혹은 젊은이들만의 저급한 끼리문화라고 단정 짓기도 한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문화적 이질감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므로 정보격차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정보격차 해소방향과 구체적 성과

정보격차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격차; 새로운 기술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회적 차이'라는 신문칼럼(LA Times, 1996)을 통해 소개된 이후로,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서이종, 1999)으로 생기는 차이로 정의되고 있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격차의 성격은 점차 세분화되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보격차를 단순히 접근과 비접근 혹은 이용과 비이용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지 않고(최두진·김지희, 2004), 보편적 접근에서 주체적 향유의 개념으로 분화(김문조·김종길, 2002)되는 다각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격차 개념의 진화는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기의 S자형 확산곡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Molnar, 2000), 접근격차에서 이용격차, 나아가 활용격차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손연기, 2004; Selwyn, 2002).

즉 정보통신기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그것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접근격차(access divide)가, 점차 정보통신기기가 보급되는 도약단계에서는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느냐의 이용격차(usage divide)가,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통신기기가 보급되는 포화기에는 사용자의 이용형태에 따른 질적인 차이(divide stemming from the quality of use)가 존재하게 된다.

접근격차나 이용격차는 주로 수입이나, 지역, 연령, 교육, 장애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기기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양하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활용격차는 교육수준이나 수입 등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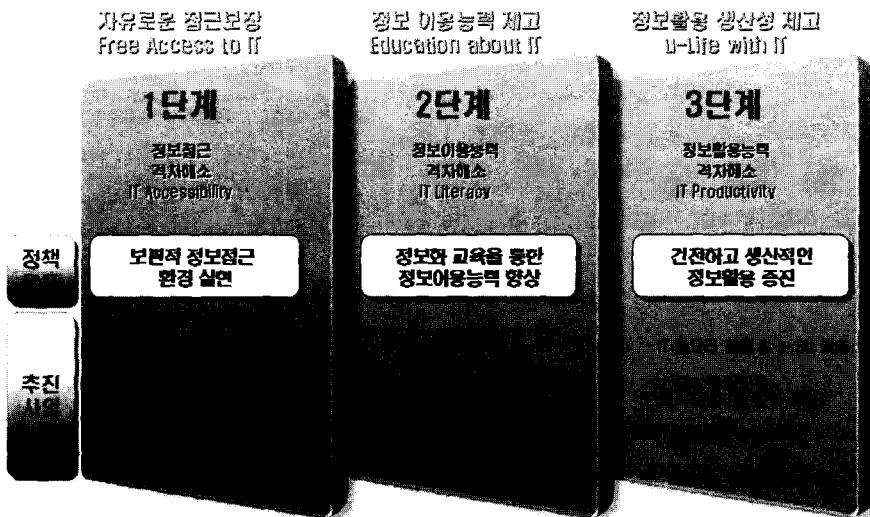
이를 종합해보면 <그림1>과 같이, 정보격차의 해소 단계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IT Accessibility 단계와, 정보 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IT Literacy 단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IT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정보기회를 창출하는 IT Productivity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듯 단계별 정보격차의 양상과 원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소전략 또한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단계별 구체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편적 정보 환경 조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IT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접

(그림 1) 정보격차의 해소단계와 추진전략



* 자료 : 손연기(2004)

근 환경의 조성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정보접근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므로, 정부는 그동안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PC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공공 정보접근시설의 확충 등에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 구축 투자를 용자 지원하여 전국 205개 모든 읍과 1,208개 면 지역의 중심지까지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농어촌 가구의 절반수준인 163만 가구가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 우체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읍·면·동에 8,263개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행자부는 2001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180여개의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전국 모범어촌마을에 250개 정도의 어촌정보사랑방을 구축하였다.

한편 정부는 전국 초·중·고교에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5만 명을 대상으로 PC 리스토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농어촌지역 등에 중고PC 41,906대를 보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스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화상전화기 등의 정보화 보조기기 5,658개를 보급하였다.

2) 정보화 교육 및 콘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 이용 촉진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아울러 정보이용 능력의 함양은 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의 대대적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는데, 2000년 10개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 「1,000만 명 정보화교육(2000~2002)」과 실용위주의 교육을

강화한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2002.7~2004)」을 통해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전 국민의 지식정보사회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3,857개의 공공기관과 단체에 정보화교육 강사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하였다.

3)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보활용의 증진

그동안 정보접근과 정보이용 능력의 제고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특히 저학력층과 10대 청소년층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비지향적이고 오락적인 정보활용 행태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어 올바른 정보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형성하고자 정부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사이버범죄 사범 교화를 실시하고 있다.

4)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와 민간협력

정보격차의 단계별 해소전략 외에도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IT 전문가 초청연수와 인터넷청년봉사단, 개도국 정보접근센터의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의 IT 발전상황을 알리고, 친한국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IT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보격차 해소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MS, 인텔 등의 민간기업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의 공적 의무인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III.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과 전망

2000년의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 이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2001)」 제정과 범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01~'05)」, 그리고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04~'08)」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노력으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아울러 '1,000만 명 정보화교육'을 통해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계층 간, 부문 간 정보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정보 접근격차나 이용격차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활용격차는 기존의 전통적인 격차와는 다른 수준에서 확대될 여지가 크며,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고도화와 새로운 IT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격차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계층별 정보격차의 심화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추진에 힘입어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정보선도계층의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계층과 취약계층 간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여전히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 <표1>에서 볼 수 있듯, 연령, 학력, 소득, 직업별 격차는 이전에 비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5.5%인데 비해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이용률은 16.2%에 불과하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경우 92.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반해, 중졸이하는 9.8%만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 월가구 소득별로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83%에 이르고 있으나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표 1〉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2000~2004)

구 분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6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 (%)	44.7	56.6	59.4	65.5	68.2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	성별	12.3	12.8	11.6	12.5
	연령별	68.4	80.3	82.1	81.8
	학력별	64.7	76.7	74.9	81.6
	소득별	-	47.6	50.5	48.2
	직업별	57.7	58.0	49.7	57.4
	지역규모별	14.2	16.6	16.5	22.9

※ 격차는 각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 간 차이임

- 성별(남 vs 여), 연령별(10대 · 20대 vs 50대 이상), 학력별(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지역별(대도시 vs 군 단위) 소득별(월가구소득 400만원 이상 vs 100만원 미만), 직업별(사무직 vs 생산관련직)

※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2004)

30.3%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가 91.4%인데, 생산직 종사자는 36.4%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용(28.2%)보다는 게임 · 오락, 채팅, 불건전 정보 유통 등의 소비적 이용(60.8%)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2. 이용용도별 활용격차의 대두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정보격차의 특성은 정보기술의 확산단계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정보기기의 보급이 포화단계에 이른 시점에서는 정보 활용능력 및 활용유형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행정서비스, 교육 · 학습, 경제활동 등의 생산적 활

3. 정보격차지수에 따른 정보격차 현황

정보화 수준과 계층 간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는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전체국민의 68.2%가 인터넷을 이용할 만큼 정보통신기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양적 측면의 정보화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 측면의 정보화 수준까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보급률과 이용

〈표 2〉 인터넷 이용용도별 이용률 (%)

인터넷 이용 용도	생산적 인터넷 이용용도			생산적 용도 이용비율	소비적 인터넷 이용용도			소비적 용도 이용비율
	예약/예매 /구매	금융 서비스	행정 서비스		오락/게임	채팅	TV/영화 /음악	
이용률	43.2	30.1	11.4	28.2	76.6	48.7	57.2	60.8

※ 생산적 용도 이용비율은 인터넷 이용용도 중, 일상생활 내 생산성 증대와 연관성이 큰 ‘온라인 거래서비스(예약/예매/구매) · 금융서비스 · 행정서비스’ 등 3개 용도별 이용률 평균값임

※ 소비적 용도 이용비율은 ‘오락/게임 · 채팅 · TV/영화/음악’ 등 3개 용도별 이용률 평균값임

※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표 3〉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지수

구 분	전체 국민	저소득층	농어민	저학력층	50대 이상
접근지수	100	46.9	50.6	58.7	65.1
역량지수	100	26.3	18.8	9.5	17.4
양적 활용지수	100	29.1	17.9	9.9	18.2
질적 활용지수	100	24.3	19.3	9.3	20.3

※ PC 이용층과 비이용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저소득층은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층, 저학력층은 중졸 이하 학력층임

※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b)

률만으로는 계층별로 요구하는 정보화 수준과 개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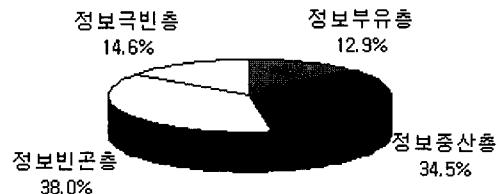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 정보격차지수(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b)로, 개인의 정보화수준을 정보접근, 역량, 활용측면에서 측정한다. 접근지수는 정보기기 이용 필요시 접근 가능성, 컴퓨터·인터넷의 성능, 보유기종의 다양성으로 측정되며, 역량지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능력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활용지수는 양적 활용과 질적 활용지수로 정의되는데, 양적 활용지수는 컴퓨터·인터넷 사용시간과 가입 사이트 수를, 질적 활용지수는 일상생활의 도움정도와 계층별 권장용도의 이용정도로 측정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b)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부문별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수준은 전체국민의 60% 미만이며 역량 및 활용수준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인터넷 이용능력 및 이용수준과 관련된 정보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별로는 저학력층의 역량지수와 활용지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표3)

정보격차지수를 근거로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분류해보면, 정보빈곤층(38%)과 정보극빈층(14.6%)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 정보통신강국이라 불릴 만큼 높은 컴퓨터 보

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정보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취약층의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균형있게 제고시킴으로써 이들을 정보중산층과 부유층으로의 편입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절실하다.

〔그림 2〕 정보화 계층별 구성비



※ 정보격차지수가 75점 이상이면 정보부유층, 50~75점 미만이면 정보중산층, 25~50점 미만이면 정보빈곤층, 10점 미만이면 정보극빈층으로 분류함

※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b)

IV. 정보기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

정보화의 혜택이란 정보를 소유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통한 이득과 편리성에

있다고 하겠다. 정보격차 해소의 목적도 정보화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정보사회로 편입시키는데 있다. 결국 정보의 ‘소유와 접근’은 정보격차 해소의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올바른 활용’을 증진시켜 모든 국민이 정보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단순히 정보 접근과 정보이용의 차원을 넘어 세분화되고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31.8%의 디지털 비참여 계층에 대해서는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지식정보 사회로 편입시키고,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68.2%에 대해서는 유용한 콘텐츠의 제공과 건전한 정보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생산적인 정보활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접근과 이용 모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에 대해서는 정보인프라 제공과 실용위주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공평한 정보접근 기회의 지속적인 제공

우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 24만 가구에 대해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국의 모든 읍면동 지역에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온라인 학습과 지역주민의 정보활용 교육 등을 담당할 IT Plaza를 구축하여 지역기반의 e-Life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체 가구 PC 보급률(78%)보다도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저소득층(47%)과 장애인

(58%) 가구 등에 대해서는 중저가 PC 또는 중고 PC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면확대 표시기, 골도전화기, 한손자용 키보드 등의 정보화 보조기기 및 S/W의 보급이 시급하다.

2.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 이용 능력 향상

그동안 국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세계 수준의 인터넷 이용률을 이를 수 있었으나, 일반국민에 비해서는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위주의 맞춤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하고, 실생활에서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계층별 필요한 맞춤교육은, 장애인의 경우 수준별, 장애유형별 교육과정,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과, 노인의 경우 노인생활에 맞는 교과과정과 콘텐츠가, 자립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기업요구에 맞는 실무위주의 IT 교육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홈뱅킹, 홈트레이닝,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이버 정치 참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 정보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정보이용 능력들도 함께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3. IT 활용을 통한 소득창출 촉진

IT를 통해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부, 자영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과 함께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IT분야의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SOHO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전문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

소득 청소년, 청년 실업자, 고학력 주부 및 장애인, 4~50대 실업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SOHO 및 e-Biz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T분야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창업 지원센터 입주 및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는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IT분야의 민간 기업에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분야의 DB 구축 등 IT분야의 단순 업무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부, 노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고용할 경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일정부분 우대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4. 건전한 정보윤리의 정착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그 의존도와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인터넷의 역기능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사이버 범죄는 최근 5년간 565배 증가했고(경찰청, 2004), 음란사이트도 국내 6만4천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20% 정도가 인터넷에 중독된 실정(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a)이며, 무차별적인 스팸메일과 음란물 등의 불법 유해정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킹·개인정보 침해·불법 복제 및 통신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정보윤리 및 문화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언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단체, 학생 및 학부모 등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전 정보문화 캠페인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운동차원에서 이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스팸메일,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역기능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서비스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중독상담 및 치료기관의 확대, 전문상담사의 양성,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전 국민 대상 정보윤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5. 새로운 정보격차의 등장과 대응전략의 강구

최근 RFID, DMB, 텔레메틱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원하는 정보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기술은 인터넷 사용경험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자 편의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취약계층도 유비쿼터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사회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지불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경우 여전히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빠른 기술속도에 비해 인간의 의식변화는 느리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수용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초기에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높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홍보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희 외(2001), 정보통신기술과 노동시장, 한국 노동연구원
- 김문조·김종길(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제36권 4호.
- 서이종(1999),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와 사회문제화, *정보와 사회*, 제2호.
- 손연기(2004), 정보격차의 현황과 정책방향,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회연구모임 강연자료집
- 유지연(2003), 디지털 정보격차의 재정의와 주요국의 현황,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2호.
- 최두진·김지희(2004),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통권2호.
- 한국인터넷진흥원(2004),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a), 2004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b), 2004 정보격차 지수 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2003 정보격차해소백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2002 국민 정보생활 현황조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범죄현황 자료
<http://ctrcc.go.kr/statistics/index.jsp>
- Campaine, B. M.(2001),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MIT Press.
- Castells, M.(1999), The Informational City Is a Dual City: Can It Be Reversed, in Schon, D. A., B. Sanyal and W. J. Mitchell(ed), *High Technology and Low-income Communities: Prospects for the Positive Use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MIT Press.
- Kuttan, A. & L. Peters.(2003),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y*, The Scarecrow Press.
- Molnar, S.(2002),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Issue, *Information Society*, Vol. 4.
- Moore, N.(1998), *Cyberspace Divide: Equality, Agency and Poli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 Norris, P.(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 Press.
- Selwyn, N. (2002) Defining the Digital Divide: Developing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nequalities in the Information Age, *Cardiff University School of Social Sciences Occasional Paper*, 49
- Van Dijk, J. & K. Hacker(2003), The Digital Divide as a Complex and Dynamic Phenomenon, *The Information Society*, Vol.19.



손 연 기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기획본

부 본부장

충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보사

회학과 교수, 학과장

정보사회학회 이사

충실대 사이버연구센터 센터장

정보통신부 정책평가 및 심사위원

국무총리실 정보화 평가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2004 대한민국 과학축전 조직위원회 공동대표

[現]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現]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분과 부위원장

[現]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